칼럼

김 윤 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시간은 대자연의 흐름, 우주의 불변의 대법칙이다. 흘러가는 시간은 매듭이 없지만, 인간이 시간을 쪼개서 사이(間)와 구별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간 앞에 모든 존재는 복종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일에는 때(時)가 있다. 일어날 때, 일할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가야할 때, 멈출 때, 물러날 때, 공부할 때, 쉬어야 할 때, 남을 배려해야 할 때 등 우리는 수많은 때를 만나서 때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때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겪으며 배우고 노력해도 부족한 일이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이 인간 보편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잘나나 못나나 죽는 날까지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성찰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재주는 약간 있으나 편견과 오만에 차 있는 경박한 재승박덕(才勝薄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공간은 장소이지만, 때로는 자리, 직책, 환경을 의미할 때도 있다. 있어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온몸을 던져야 할 곳, 지나가야 할 곳 등 우리는 한시도 장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장소가 앉아 있는 자리나 직책, 환경을 의미할 때는 많은 연상이 떠오른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바뀌니 사람이 달라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경박하고 의리 없고 조변석개(朝變夕改)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불나방이 불을 보고 죽을 줄도 모르고 돌진하듯이, 돈과 권력, 명예를 보고 무조건 돌진하는 각박한 세태(世態)는 날이 간다고 호전될 전망은 없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은 인생 도처(到處)에 상처 입은 실패자, 낙오자(落伍者), 불만자(不滿者)를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아프고 잘못 되어서 가게 되는 병원과 교도소는 날이 갈수록 확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 까지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가지 사이, 삼간(三間)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엄숙한 운명이요 숙명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차 시간과 공간,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

시간이나 공간 보다는 인간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함께 잘못되는 일도 많고, 그 반대도 많다.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특히 한 마음 한 몸이라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의 결혼 배우자의 선택과 만남은 서로에게 주고 받는 의미와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짝 배필(配匹)이라고 하고 운명적이다.

결론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종교나 사상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사회적·법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성인(成人)은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삶 속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자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다.

자기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성취와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소소한 행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행착오(試行錯誤)와 미완(未完)의 연속이다.

일회적이고 유한한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선택하고 만나는 자기 자신이 먼저 부지런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기부터 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대로 내던져진 역사적인 실존(實存)인 우리들은 좀 더 깨어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소통하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아름답고 최선의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화재를 피하는 비밀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경량칸막이'때문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이 의무화됐다.

또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시설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집사이에,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가 되어있다.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적은 힘과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발생 시 피난에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수납공간 혹은 방 안의 가재도구 배치 등 물건의 적치로 인해 피난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화재발생 시 요구조자의 대부분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난방법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장애물은 구조자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흉기인 샘이다.

그러므로, 빠른 피난을 위해 내 집의 경량칸막이 위치와 혹시 칸막이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칸막이를 부술 도구들은 있는지? 등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으로서 아직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서 말한 화재와 같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고들을 통해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는 '타산지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현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 이 현 교 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